

연 중 제 3 주 일

기도서 P. 333

제1독서(요 나 3, 1-5, 10)

제2독서(고린전 7, 29-31)

복 음(마 르 1, 14-20)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사 목 국
인쇄	판 리 국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강론



회개는 구원의 길

서 석 기 신부

인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득히 받으신 후 선교의 길에 나섰습니다. 그분의 첫 설교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꿰뚫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 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마르 1, 15)

이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중대한 구원의 메시지요 하느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구약의 요나 예언자는 사치와 죄 중에 사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1독서에서도 들려줍니다. 하느님의 벌을 받아 잿더미가 되어야 할 니느웨 도시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귀여겨 들어 왕까지도 굶은 배웃을 걸치고 잿더미 위에 앉아 단식하고 회개 함으로써 그 벌을 모면하였습니다. 회개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일성으로 인류에게 요구, 아니 명령하신 것입니다.

죄악의 도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외침에 자기들의 잘못을 재빨리 깨달고 회개하여 구원 받았습니다. 회개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늘 우리에게 잘못을 일깨워 주고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살인한 적도 도둑질 한 적도 없었다면서 성자인양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무슨 회개라는 말이 해당되었습니까.

또 한편으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얼른 고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 어찌 회개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가혹한 말일지 모르지만 구제되기 힘든 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해도 큰 잘못은 아닐 듯 싶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늘 반성하고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 아니고는 오히려 자신을 모르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길인 참 회개를 명심하여 실행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강론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서 숲정이 ‘회개하시오’(사도 2, 38)라고 말했습니다.

죄의 늪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모두는 구원의 길인 회개를 잃고서 구원을 갖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같이 죄를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덕진 천주교회 주임신부)



누구를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상대방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해서, 그 아픔을 나누고자 온갖 노력을 다한다. 감기에 걸려 콧물거리는 손자를 품에 안은 할머니는 “그놈의 기침, 나에게 몽땅 오너라” 하며 가슴으로 빈다. 딸 못하는 어린 자식의 고통을 대신 당하고 싶어 하는 부모의 심정이 바로 그것이다. 대신 죽고 싶을 지경의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다.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사랑은 상대방을 받아드리고,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것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자기 자신과 알고 있는 이웃들(부모·처자·형제·친척·친구들), 이 모두는 우리가 참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포기하는 잘못이 며 물고, 아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천륜(天倫)과 인간미를 저버린 고깃덩어리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물론, 자신과 알고 있는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하느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가까이 있는 보잘것 없는 형제 자매들이다. 가난한 모습으로 우리 주위를 방황하는, 일그러진 모습으로 신음하며 고통중에 나날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숨쉬는 그리스도이다. 아무도 실패 말아들지 않는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 주일은 구라주일이다. 나병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늘진 뒷골에서 한숨을 짓는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자. 나병으로 고통받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고 계신다.

숲 정 이 산책



국가 발전에 공헌했어

◇ 교구 평협 신·구 회장 인사

<취임사> **확신에 찬 前進을**

양 상 렬(암브로시오)

새해를 맞이하신 교우 여러분에게 보다 많은 은총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일천하고 결함이 많아서 7만 신도를 대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평협 총회의 의결은 명백한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잠겨어린 마음으로 평신도 회장이라는 성스러운 직책을 수락하였습니다.

평신도 협의회는 교구장님을 보좌하는 자문기관 겸 보조기관이면서 동시에 평신도사도직을 자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자치기관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생활화와 복음의 전파가 이제는 사제에 앞선 평신도의 중요한 고유 사명임을 생각할 때 우리 평협과 평신도는 옷깃을 여미는 새로운 결단 앞에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선 평협조직의 유기화와 그 활동의 기능화를 시도하면서 각 분당과 단체들 사이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노력하고 싶고, 당면한 몇가지 사업을 통하여 하느님 자녀들의 굳건한 결속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존경하는 사제님, 그리고 교형 자매 여러분!

비록 교구장님이 안계시고, 또 200주년 준비라는 고비를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은총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저와 함께 확신있는 전진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어드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교구 평협회장>

<이임사> **감사합니다**

조 성 호(야고보)

감사합니다. 교구내의 평신도를 대표하는 평협(平協)의 회장 책임을 맡았던 지난 6년동안 대과(大過)없이 물려나게됨을 김주교님과 교구내 모든 신부님들, 그리고 평신도 형제 자매들의 도우심이라 믿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평협의 기반조차 제대로 닦아놓지 못하고 물려섬을 죄송하게 여깁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평신도들의 위치는 높이 부각되었습니다. 갑자기 매두된 평신도들의 주인의식이, 올바르게 이해되지 못한 점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평신도들의 참여를 통해서 교회 발전에 기여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지난날을 거울삼아 새로운 자세로 참여할 일만이 남았습니다. 교회의 정당한 권위의 동의를 받아서, 사목자들과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것(평신도교령 24~25)입니다. 부디 이러한 질서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매진하여 하느님 왕국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前 교구 평협회장)

시청각 통신성서 교육부 안내

오늘날 성서만큼 널리 보급되어 있는 책이 또 없다. 그런데 성서가 널리 보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성서에 대한 바른 이해는 매우 드문 듯하다.

가톨릭 교리 신학원 내에 병설된 시청각 통신성서 교육부는 교파를 초월한 모든 이들과 밀접한 이들과 하느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병용하면서 통신으로 성서를 연구하게 해 주는 2년간의 교육과정으로서 구약 1년, 신약 1년이다. 매 학기 말에는 연수회를 가짐으로서 통신교육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생활교류를 하는 등, 이론적 성서 공부만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과의 삶을 건 만남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전주교구의 성서 사목방침에 따라 지금까지는 서울에서만 가졌던 연수회를 교구단위로 하여 전주에서도 개최할 예정이다.

모집인원 : 000명

입학자격 : 고등학교 졸업

문의 및 입학원서 교부처

전주—성바로로 서원(전화 33398)

교구 사무국(전화 5098, 3201),

서울—가톨릭 교리 신학원 110/서울 종로구 혜화동 90-12. 시청각 통신성서 교육부

성바로로 여자수도회 132/서울 도봉구 미아동 103. 시청각 통신성서 교육부

입학원서대 : 3,000원

원서교부 및 접수 : 1982년 1월 8일~2월 5일

등록비 : 28,000원(1년)

서품식 예고

서품자들을 위해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고 당일 교우들은 물론 많은 청년들의 참여로 성소에 더 큰 관심 갖게 성원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품일시 : 1982년 2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서품장소 : 전주 중앙 성당

주 메 : 김 재덕 주교님

서품예정자 : 사제품—박찬길(미카엘) 중앙 본당 안철문(이냐시오)복자 //

부제품—나춘성(스테파노)팔마 //

정양현(베드로) 김재 //

경규봉(가브리엘)교산 //

혼수옷감·회갑옷감·파티복·링크담요·수예품
맞춤이불전문

한 일 옷 감

전화 7203
전주시 전동 3가
시내버스 남부배차장 옆
吳 共 千(도밍고)

금·은·보석·시계

일 성 당

정유 중앙동
제일아케이트 내
전화 6429
송 베드로(판용)
남 베로니카

□ 교우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안 과 의 원

(송외과 입구, 태극당 2층)

원장 한 규 형(루카)

전화 5562
전주시 경원동 1가 57-3

□ 신장개업

금·은·보석 고급 시계

보 석 장

군산 중앙로1가 경찰서부근
(조흥은행 앞)

전화 2513
한 철 재(비오)

ECCLESIA

교구 평협 제7차 총회, 새로운 자세 다져

—양상렬(會長)·이홍재·채수현(副會長)씨 새 임원으로 뽑혀

교구 평협 제7차 정기총회가 지난 16·17일 양일간에 걸쳐 가톨릭 센터에서 있었다. 총회는 제1부(개회식)와 제2부(보고사항 접수)를 마치고, 평신도의 자세와 해야 할 일에 대한 연수도 가졌다. 조성호 회장과 범석규 신부의 특강을 들은 참가자들은 「평신도와 그 활동의 현주소 및 문제점」과 「교구 평협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고 의지를 모았다.

이튿날, 82년부터 평협을 이끌어갈 새 임원을 뽑고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한편, 파견 미사를 주례한 교구장 직무대행 김환철 신부님은 강론을 통해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평신도 사도직의 참뜻을 알기 위해 <평신도 사도직 교령>을 공부하기를 당부했다.

◇회장: 양상렬(덕진), 부회장: 이홍재(노충동)·채수현(L·M 교미시움 단장)

◇상임위원: 김은홍(창인동)·고수창(약사회장)

◇감 사: 강신중(오룡동)·이태영(방지거 3회 회장)

대학생 연합회 간부 수련회 마쳐

교구 대학생 연합회(지도신부 김진소)에서는 새 회장단들의 「사목교서 및 사목지침」에 대한 교육 연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송광 보이스카웃 캠프장에서 있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도 아랑곳없이 67명(졸업생 9, 재학생 58)은 한국 교회속의 전주교구 대학생 활동방향을 간단없는 공부와 토의를 통해 선교·전례·제경·봉사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군인들의 야영훈련을 방불케 한 노천 막사에서 열린 연수회였는데, 10년전 선배를 위시한 전임 간부들의 식사준비 등의 뒷바라지와 난방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혹한에도 한 사람의 탈락자도 없는 보기드문 수련회였다.

선·후배의 따뜻한 유대속에 없는 반찬과 어려움에도 불평과 좌증 한 번 없이 내일의 교회를 살아가길 부른 꿈을 다듬어간 대학생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고 축복하자.

중·고등연, 정기총회 갖고 임원 개선

—회장: 최원일, 부회장: 김종숙 뽑혀

중·고등 학생 연합회 정기총회가 지난 17일 가톨릭 센터 강당에서 있었다. 교구내 14개 본당에서 참석한 37명의 대표들은 지난해의 사업보고 등을 듣고, 제24대 집행회장을 뽑았다.

제24대 회장에 뽑힌 최원일(바오로, 전동, 영성교)군과 부회장 김종숙(루시아, 숲정이, 근영여교)양은 새로운 임원을 편성하여 한 해 동안 수고하게 된다. 각 본당 학생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특별히 요망된다.

임실 교우들 따뜻한 형제애 발휘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으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임실본당(주임신부 조정오)은 주일에도 난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의자 없이 찬 마루 바닥에 앉아 공소예절을 마쳐야 하는 벽지 공소 교우들을 생각하여 자체적으로 방석 보내기 운동을 벌였는데 전 신자들의 정성으로 지난 17일에는 4공소에 도합 200여개의 방석을 전달했다고 한다. 또한 전동성당의 몇 교우도 이 소식을 듣고 협조하여 설을 앞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사랑을 말하기는 쉽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사랑을 보여준 임실 교우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주님의 축복을 빌다.

요십이(442) 김병오



VIP 제일모직
중앙동 직매장

각 메이커 순모·혼방 다량구비

흔수용·선물용 특별우대

흥년 제과 ☐	미 의상실 ☐	관 통 도 로
← 남부시장		
(구) 현대라사		
대표: 양영육 장 바오로 (현우)		
☎ ④ 4520		

건강을 드리는 희소식!!

◎土龍(전액·칼셀·분말)

※ 종래의 토룡탕보다 농도와 효능이 탁월함

「聖베네딕도 수도원 제조」

토룡센타(전복총판)

전주 성모병원 3층 303호

전화 ⑥ 5587번

할 수산나

신학기 학용품 특별봉사

시민 노트사

소방서 뒷사거리

중앙시장 입구

교우집을 찾아 주세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강영욱(로모알드)

☎ ④ 2622

주단·포복(흔수·희갑웃감)도매상

각종 솜, 이불(밍크)카펫지

도매상

서울주단

전화 ③ 0453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 안토니오

三星物産 전주특약점

Weekend 버킹엄
MCGREGOR (남여)

주니어 아동복

전주시 중앙동 3가 96

삼화약국 옆 전화 ④4451

유 율 리 안 나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1. 구라주일(다음주일) ※ 특별헌금 있습니다
- 2. 중·고생 동계 목사회: 1월 27일<수> 오후 1시~28일<목> 가톨릭센터 회비-4천원
- 3. 교리교사 동계 연수회: ① 2월 8일~10일(2박 3일), 접수-오후 1시, 1·2·3지구
② 2월 11일~13일(2박 3일), 접수-오후 1시, 4·5·6·7지구
- 4. M. B. W 전국 콤비엔자 모임: 2월 8일~11일 내장산 관광호텔 산장

중앙

전화 ⑥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유종민
보좌 신부 박인호
사도 회장 박광문

- ★ 성경읽기, 사무엘 하 7장~12장, 마르코 3장~4장
- 1. 사제서품: 2월 2일 오전 10시30분, (양일간 아침미사 없음)
새신부 첫미사-2월 3일 오전 10시30분
- 2. 초 봉헌: 주의 봉헌축일, 2월 2일<화>이오나 사제서품식 관례로 2월7일 오전 10시30분 공식미사에 초봉헌 예절이 있습니다. 초 2차루이상 봉헌합니다
- 3. 구정합동 위령미사: 오전 6시, 오후 7시
- 4. 어린이 영세: 1월 29일<금> 10시30분 어머니미사 후 미취학 어린이 10시까지 사무실에 등록하세요
- 5. 예비자 봉헌예식: 31일 공식미사 중에
- 6. 고등학생 동계 특별교리: 26일~30일 매일 오전10시 교요통신성서 강의 시작
기초반-매주 금요일 낮 11시·밤 7시30분
신설반-매주 수요일 밤 7시30분 강당
- 8. 주일학교 6년생 하루피정: 28일 9시~오후 6시까지 가톨릭 센터
- 9. 축! 성우회 발족: 회장-김상규, 부회장-이창환, 총무-송현식, 창립총회-2월 2일 오후 7시미사부터
- 10. 토요 특전미사 시간변경: 오후 7시에서 오후 6시로 변경, 이 미사는 중·고생을 위한 미사임 (토요 특전은 어른에게만 해당됨)
- 감사헌금: 한테레사(10,000원), 익명(15,000원)
- 지난주 봉헌금: 562,492원

노송동

전화 ⑧7032번
주임 신부 김성원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 1. 구정합동 위령미사: 25일 새벽 6시
- 2. 전국 성령세미나: 2월 5일~7일까지(2박 3일)
장소-노송성당, 참가비-8,000원, 숙식은 개인부담
분당 신자도 환영합니다
- 3. 공소 순회미사: 매주(월·목·일)은 인후아파트미사
매주 수요일은 소양지구의 각 공소 순회미사
- 4. 미사시간 변경: 노인미사-토요일 오후 4시, 중·고
등생-일요일 오전 9시, 주일학교-일요일 오후 3시
- 5. 예비자를 안내합니다: 예비자 안내는 신자들의 의무
입니다. 2월 첫주부터 교리를 시작합니다
- 6. 교무금을 납부합니다: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
다. 교무금 신임을 못하신분 1월중에 꼭 신입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293,971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양상열
사도 회장 양상열

- 1. 구정합동 위령미사 예물접수: 25일 저녁 7시미사
- 2. 교리교사: 회장-박성우(마태오) 수고하시겠습니다
- 3. 입교대상자 봉헌: 현재-29명
1세대당 1인씩 꼭 인도합니다. 2월 첫주부터 시작
- 4. 주일학교 동계 공소 특별교리 무사히 마쳤습니다
- 5. 분당내 모든 교우분들은 1단체에 꼭 가입하여 사도
직 수행에 앞장서시다
- 6. 구정 불우이웃돕기: 성의를 기다립니다(봉사부)
- 7. 다음주 미사 전례
금주독서-①이남영 ②소원영, 해설-이영남
차주독서-①김용환 ②박용철, 해설-김은식
- 지난주 봉헌금: 419,860원

복자

전화 ⑤238번
주임 신부 김희택
보좌 신부 김희호
사도 회장 조성호

- 1. 분당 피정: 일시-1월 30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
장소-복자성당

- 대상-사도회임원, 반회장, 반회지도자, 기타
- 2. 구정합동 위령미사: 25일<월> 미사, 저녁 7시
- 3. 구라주일 특별헌금: 다음주일(31일)
- 4.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31일)
- 5. 축! 서품: 2월 2일 오전 10시30분 중앙성당
첫미사-3일 오전 10시30분 복자성당
- 6. 다음주 전례: 해설-김화영 독서-①강준희 ②송영자
- 지난주 봉헌금: 402,18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활인규

- 1. 구정합동 위령미사: 25일<월> 새벽 6시, 오전 10시
- 2. 초 봉헌: 성당과 가정에 봉헌할 초 사무실에 신청
- 3. 예비자 교리안내: 매주 일요일 공식미사 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30분
- 4. 애령회 임원당대: 회장-김노아, 부회장-장가다라
일·김말가리다, 총무-윤성순, 봉사부-성심회원
일동, 각 반장님들
- 5. 올드레아 모임 및 새 푸르실리스타 환영: 29일<금>
저녁 7시30분
- 6. 학생회 신뢰장단: 이정훈(요세)·서은영(루시아)
- 7.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김한기 ②차상열
- 지난주 봉헌금: 210,730원 교무금: 268,500원

숲정이

전화 ⑧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수·유⑧9567 사도 회장 김수겸

- 1. 요안회 월례회: 24일 공식미사 후 사도회장님 배
- 2. 주일학교 아동 피정: 24일 오전 9시 접수
- 3. 구정합동 위령미사 예물: 24일까지 접수
구정 미사시간-오전 7시,
- 4. 요안회 주회 피정: 31일, 요안회원 및 남성님들
- 5. 매주 월요일 7시30분 구세주의 모후 레지오에 가입
하고자 하신 분 참석 바람
- 6. 예비자 교리안내: 매주 공식미사 후, 수요일 오후
2시, 밤 7시30분, 성서연구 뜻있는분 참석바람
- 7. 차주 전례담당: 해설-이귀래
독서-①김경우 ②김중환, 기도-이철수
- 8. 차주 미사안내: 김정숙, 신순영, 김유리안나, 문영
희, 권춘자, 최옥주
- 지난주 봉헌금: 462,300원

전동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병엽
사무 ③3222번 보좌 신부 박준두
수녀 ⑧8347 사도 회장 이종두

- 1. 구정합동 위령미사: 25일 월요일, 아침-6시
- 2. 31일 이누갈다 치병기념일
미사-30일 오후 3시, 해성학교 교정
- 3. 중·고등학생회 임원개편
신입원: 회장-최원일, 부회장-류인식·이경희
- 4. 이마리안나 수녀님 3년 허원 피정
- 5. 차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종구, 독서-①이현재 ②김동연
공식미사: 해설-이주철, 독서-①김일균 ②백종우
저녁미사: 해설-경양주, 독서-①변해식 ②김동수
- 지난주 봉헌금: 521,57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활희상

- 1. 호성금 갹생원에 옷가지 4자루를 전달했습니다
- 2. 구정(25일) 미사: 아침 6시30분
- 3. 중·고학생회 새 임원선출: 회장-채노병
부회장-권석규, 총무-황의철·박금숙
- 4. 로사리오의 모후 푸리아: 매달 첫주일 오후 2시
- 5. 재경분과 위원 모임: 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63,645원 교무금: 370,000원